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

23.11.16(목) 오후 2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 강의실

6411 투명인간의 목소리: 피, 땀, 눈물

우리사회 6411 투명인간의 목소리가 갖는
인문, 사회, 정치적 의미를 공유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확장하고 의미화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사말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1부 주제강연 - 6411의 목소리'들'

이미영 카부기상호공제회 - 나는 10년차 여성 대리운전기사다
최우영 권리찾기유니온 마루지부 - 나의 퇴직공제금은 누가 가로채 갔나?
이은자 퍼스트잡지원센터 - 출근하는 발달장애 딸에게

2부 발표와 토론 - 서사적 우정과 당사자의 글쓰기

사회 권순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6411의 목소리 편집자문위원
발표 고영직 문학평론가

토론

강명호 6411의 목소리 편집자문위원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이순혁 한겨레 오피니언부장
최지인 시인

공동주최

노회찬재단, 세교연구소, 지리산포럼 이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노무현재단

주관

노회찬재단

노회찬재단



서사적 우정과 당사자의 글쓰기

고영직 | 문학평론가

읽고 쓰는 사람

문학 편집자인 오경철은 『편집 후기』(교유서가 2023)에서 편집자로 산다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을 구분하면서 먹고사는 일”이라고 말한다. 편집자라는 직업적 특성을 잘 풀이한 말이지만, 나는 이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내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갈수록 독서 인구가 줄고 있고, 이에 따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해력(literacy)의 후퇴 현상이 전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며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소통의 동맥경화 현상을 온몸으로 앓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경철이 “읽고 쓰는 일이 읽고 쓰는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한 말은 펍 심오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읽고 쓰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나는 인간의 인간됨을 생각하며 일상에서 경이(驚異)로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일상의 경이로움이란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나는 ‘발견하는 기쁨’이야말로 그 원천일 것이라고 믿는 편이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미처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라니! 생물학자 최재천이 『최재천의 공부』(김영사 2022)에서 “100세 시대에 20대 초에 배운 지식으로 수십 년을 우려먹기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한 말은 발견하는 기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독서 경험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저마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자의 미디어에 심취해 각자의 진실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려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응용언어학자 김성우와 사회학자 엄기호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따비 2020)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유례없는 리터러시의 위기와 변동을 겪는다고 진단한다. 책을 ‘읽는’ 시대에서 유튜브를 ‘보는’ 시대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리터러시가 심각한 위기에

쳐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문자로는 시험공부하고, 세상 보기는 영상으로 보며, 네이버 지식인 대신에 유튜브를 검색엔진으로 이용하는 시대가 된 것을 보라. 책 제목을 조금 비틀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독서 환경은 ‘유튜브가 책을 집어 삼켰다’고 보아야 옳을 터이다.

아직 절망은 이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텍스트 중심의 문해력을 갖춘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적지 않다. 전국의 성인 문해교실에서는 한글을 익히려는 노년 세대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다. 경북 칠곡 할매들의 시집 『시가 뭐고?』(삶창 2017)에는 유독 ‘배움’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들이 여럿이다. 박후불 할매가 쓴 시 「눈」을 보자.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눈이 침침해서/ 칠판에 글이 안 보였다/ 눈물이 났다/ 안과에 가서 수술했더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칠판에 글이 잘 보인다/ 글이 잘 보여 눈물이 났다/ 심봉사도 나만큼 좋아했나”. 나이 들을 성찰하며 자기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기의 민족지를 구성하려는 노년은 아름답다. 시집 『시가 뭐고』를 묶기 위해 칠곡 할매들의 시 700여 편을 읽으며 얼마나 즐거운 독서 경험을 했는지 모른다. 나는 박후불 할매 같은 노년이라면 누구나 ‘시인’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사적 우정’은 가능한가?

2000년대 이후 글쓰기의 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나 시인이 되고, 누구나 저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글쓰기의 민주화는 권위와 문자가 분리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어느 때보다 글쓰기가 대중화되었고, 글쓰기 또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 (주)삼원기업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저 1970년대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1978)과, 지난해 출간해 화제를 모은 ‘청년공’ 출신 천현우의 『씻밥일지』(2022)를 보면 확연히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유신 시절 ‘각성한 노동자’(백낙청)였던 유동우가 쓴 노동문제는 곧 공안문제였지만, 천현우의 글쓰기에서 보듯이 지금의 글쓰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같은 차이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관련 있다. 1970-1980년대 두세 평 남짓한 ‘별집’으로 상징되는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환경과 지금 여기의 현실 사이에는 큰 낙차가 있다. 1970년대 후반 열여섯에서 스무 살까지 별집에서 여공(女工) 생활을 한 작가 신경숙이 『외판방』(1999)에서 “서른일곱 개의 방 중의 하나, 우리들의 외판방”이라고 부른 가리봉동의 별집은 이제 ‘구로디지털단지’로 변신한 데 이어 ‘G밸리’로 오래전에 변신했다. 피, 땀, 눈물로 상징되는 육체노동은 1990년대 이후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지노동으로 노동의 양상이 바뀌었다.

한편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 문학적 대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취가 ‘여공(女工) 문학’이었다.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 송효순의 『서울로 가는 길』, 인천 동일방직 노동자인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1977/1984) 같은 여공들의 자전적 수기(手記)를 노동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김원은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2006)에서 산업화 시대 여공 수기 문학에 대해 “가족 내 남성은 ‘미래 생계 책임자’로, 여성은 ‘즉각적 생계 보조자’로 담론화되었다”라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여공 문학의 가치란 무엇이었던가. 호주 출신 한국문학 연구자인 루스 베리클러프는 『여공문학』(후마니타스 2017)에서 “가정에서든 공장에서든 여성은 남성에 의해 재현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일 뿐,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고 적는다. 다시 말해 여성 노동자들이 자전적 수기를 썼던 이유는 노동하는 여성 스스로 자아를 구성함으로써 사회적 망각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의 문학을 성찰할 때 ‘여공 문학’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원섬유 지부장인 남성 노동자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1977) 또한 1970년대 산업화 시대 망각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긴 중요한 수기 문학이었다. 미국 사회운동가 나오미 울프의 말처럼 “우리가 싸우는 과정 자체가 싸움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한 의미가 노동자의 글쓰기에 내장되어 있었던 것은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글쓰기의 민주화 또한 이루어졌

지만, 노동자가 당면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 재벌 해체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홍세화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운동이란 ‘몸이 거(居)하는 곳에서의 정체성/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주체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노동자 당사자의 글쓰기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중요하다. 하지만 당사자의 글쓰기가 개인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서사적 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운동이란 조직, 학습, 선전홍보라는 3요소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사적 우정이란 다른 무엇이 아니다. ‘이야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야기 공동체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철학자 김애령은 『듣기의 윤리』(봄날의박씨 2020)에서 서사적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나의 이야기이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나의 이야기가 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시간이 이야기하는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이야기를 간직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자신의 이야기가 경청되고 있다는 경험은 다음 시간을 예약하는가 하면, ‘내가 와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준다. 당사자의 글쓰기가 서사적 우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일상 곳곳에서 ‘이야기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철학자 한병철이 『서사의 위기』(다산초당 2023)에서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몰아의 상태로 접어들수록 들리는 내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남는다”라고 했던가. 그가 “이야기하기와 귀 기울여 듣기는 상호 의존적이다. 이야기 공동체는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당사자 글쓰기: 생존에서 생명으로

우리나라 옛날이야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항상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난다. 이야기의 힘으로 비루하고 팍팍한 현실을 끝내 ‘버티고 이기려는’

민중들의 소망충동이 이야기에 응축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민중들이 처한 실제 삶의 현실은 이야기의 결론과는 정반대였다고 간주할 수 있으리라. 절대다수의 민중들은 잘 먹지도 못했고, 잘 살지도 못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오직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습관과 태도를 내면화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힘들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민중의 ‘생활주의’는 탄생했다.

글을 쓰고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5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시부문 예심에 참여한 손택수 시인이 전해준 말은 매우 흥미롭다. 2014년 4·16 참사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안산 단원고 인근 고잔동에서 투고된 작품이 30건이 넘었다는 것이다. 손 시인은 “한 지역에서 이만큼 많은 작품이 나왔다는 건 특이한 일이다. 문학을 통해 자기 치유를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고잔동에서 투고된 작품 가운데 당선작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단원구 고잔동에 사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이성복)라고 해야 할까. 고잔동 사람들은 ‘누구도 남을 돌보지 말라’를 미덕으로 여기는 병든 사회에서 내 안의 안녕하지 못한 마음생태학을 바꾸기 위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한 것이었으리라. 이때의 치유란 개인의 힐링이 아니라 사회적 치유(social care)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면면히 지속되는 우리들의 삶이다. 옛 구로공단은 변했지만, 끝내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함께 사는 ‘삶터’를 복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들의 삶터가 일터가 되고 놀터가 되어야 한다. G밸리에 소재한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수년 전 영등포 본동에 자리한 비정규노동자쉼터 ‘꿀잠’에서 활동하고, 락희력키구로공단 같은 예술가 그룹이 <봉봉(縫逢)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그래서 매우 징후적이다. 봉봉이라는 말은 ‘끼매고 만나다’라는 뜻이다. 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생각하는 손’의 힘을 상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계속된다. 생존(zoe)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생명(bios)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생존에서 생명으로’, 이것은 우리의 유구한 슬로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당사자의 글쓰기 또한 자기 배려로서의 학습과 타자 배려로서의 학습이 동시에 가능한 경지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주체가 되기 위해 일터에서의 변화, 가정·집에서의 변화, 배움터에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이, 조직하고, 학습하고, 선전홍보해야 한다. 쉽지 않다. 우리는 아무도 설득하지 않고, 아무도 설득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야기가 나의 경험을 하나의 주제를 가진 줄거리로 엮을 수 있을 때,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되고 그 경험은 나의 역사가 된다”(김애령)는 말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는 이 의미를 ‘서사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이라고 명명한다.

같은 책을 읽고, 누군가가 쓴 글을 같이 읽고 공감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이먼 앤 가펩클이 부른 팝송 제목처럼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런 만남은 나를 바꾸는 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상호작용한다. 철학자 랑시에르의 저 유명한 ‘프롤레타리아의 밤’ 같은 개념은 프랑스혁명 이전 노동자들의 책읽기가 사회를 바꾸는 밑거름이 되었음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던가. 그리고 일본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가 ‘책읽기는 혁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그러한 역사적 전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말을 정치적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원래 혁명을 의미하는 영어 Revolution이라는 말은 회전(volution)을 의미하는 천체물리학에서 파생된 말이다. 회전의 방향을 ‘다시 돌린다’는 의미가 바로 혁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책읽기가 나와 사회를 바꾸는 작은 회전이 되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 돕고 서로 도우면서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노동자 글쓰기 및 학습 동아리들의 즐거운 분투가 곳곳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우리들의 서사적 우정을 위하여!

‘나의 노래’를 날아가게 하기 위해

강명효(6411의 목소리 편집자문위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아무도 뵈지 않는
암흑 속에서/조그만 윙조림은 커다란 빛/나의 노래는 나의 힘/나의 노래는 나의
삶//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자그만 아이의 윙
음 속에서/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나의 노래는 나의 힘/나의 노래는 나의 삶//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바람의 나무끼는 나무 가지처럼/흔들리고 넘어져
도 이 세상 속에는/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나는 마시고 노래하리/나는
마시고 노래하리//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큰 문짝/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리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는/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면/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
를/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그러나 그대 모두 귀 기울일 때/노래는 멀리멀
리 날아가리/노래는 멀리멀리 날아가리”_한동헌, 〈나의 노래〉

=그저 담배를 원을 만들어 피자는 말을 했을 뿐인데, ‘6411의 목소리’ 편집자
문위원이 되어 투명인간이 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을 한 지 1년
반이 되었다. 그 동안의 작은 고민을 적는다.

=공적인 스피커를 통해 자신의 노동과 그 희노애락을 담은 글을 쓰게 하는
것은 아마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아무도
뵈지 않는 암흑 속에서/조그만 윙조림은 커다란 빛”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라 생
각한다.

=외연의 확장 및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나의 노래’를 부르하고자 하는 이
를 어떻게 늘리고 찾을 것인가? 이를 위해 구술생애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투고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기 혹
은 쓰기 혹은 노래하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더더욱 투고를 늘려야 한다.

=“그대 모두 귀 기울일 때/노래는 멀리멀리 날아가리/노래는 멀리멀리 날아가
리”: ‘나의 노래’를 어떻게 날리고 누구를 감응하게 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 개인적 역사의 민중사를 위한 집적 및 확장과 공론화, 정치의제화가 과제다.

=나의 마지막 고민은 ‘나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나’는 성장했는가? 아니 ‘나’로 성장시켜야 하는가? 성장했다고 한다면 ‘나의 노래’로 성장한 투명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작가(예술가/자유인)’가 그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바람의 나무끼는 나무 가지처럼/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나는 마시고 노래하리/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노동자를 만나온 경험을 중심으로 떠올려보는 투명인간의 말하기 글쓰기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1. 누가 말하는가?

- 공적 공간에서 발언권을 갖기 위해 집회를 하고 1인 시위를 해온 노동자들
- 토론회, 간담회, 증언대회, 기자회견을 통해 말해 온 노동자들
- 고발하거나 연대하거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발언의 자리
- 노동조합이나 조직이 없는 '거의 모든 노동자'의 자리는 어디일까
-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 그러나 고립되고 단절된 사람들
- 연결되고 싶어서 말은 거는 사람들

2. 누구의 언어로 말하는가?

- 저마다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는가, 존중하는가.
- 경험과 지식의 격차 만나지 못하는 언어
- 경험과 지식이 담기는 글쓰기
- '알바 썰', 인스타툰, 웹툰,

3. 누구에게 말하는가? 듣는 이는 누구인가?

- 광장에서 말하기 계토에서 글쓰기
- 듣는 이 없는 이야기는 어디에 쌓여가고 있을까
- 이야기 청하는 사람들
- 공감하고 연결하는 사람들

당사자 글쓰기의 새 전범 ‘6411의 목소리’, 그 도약을 위해

이순혁 / 한겨레 오피니언부장

-여러모로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어색하고 모자라지만, ‘6411의 목소리’라는 콘텐츠의 ‘마지막 편집자이자 첫 독자’로서 영광스러운 책무를 하고 있기에 함께 하게 됨.

-알다시피 모든 콘텐츠가 유튜브란 블랙홀에 빠진 시대, 또 뉴스 소비도 디지털과 영상 짝 위주로 자기확증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이뤄지는 시대임. 레거시 미디어라는 신문업에 몸을 담고 있는지라 이런 시대 현실, 글 안 읽는 시대는 중요한 고민 지점인데, 그런 맥락에서 6411의 목소리는 제게 매우 특이하게 다가오는 쪽지.

-글을 읽지 않는다는 것과 동전의 앞 뒷면 관계에 있는 건, 글을 쓰지 않는다는 것. 고영직 선생님이 발제 때 언급하신 철학자 한병철의 “이야기하기와 귀 기울여 듣기는 상호의존적이다”(‘서사의 위기’)는 말과도 통하는 대목임. 그런 시대에 글쓰기와는 상대적으로 먼 삶을 살아온, 사회적으로 값싼 노동을 해온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그게 바로 6411의 목소리가 제게 특이하게 다가오는 이유고, 또 이 쪽지의 코너의 존재 이유 아닐까.

-6411의 목소리가 당사자로서의 글쓰기로서 시대적 전범을 보인다고 생각. 발제해주신 고영직 선생님이 지적하셨지만, 당사자 글쓰기는 1970~80년대에도 있었고 최근엔 천현우의 쫓밭일지가 화제가 됨. 6411의 목소리는, 노동자 가운데 극수소 한두명이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소설 형식의 글을 빌려 대중에게 말 거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적임. 다양한 이들이 등장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에, 깊이는 열더라도 폭은 넓은 셈. 보다 광범위한 참여 스펙트럼이야말로 6411의 목소리가 가지는 특징 아닐지..

-지금까지 80명 가량이 6411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함. 앞으로

6411의 목소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조심스럽게 살펴봄.

-우선, 떠오르는 건 외연 확장의 필요성. 6411의 목소리가 가지는 다른 당사자 글쓰기와 차별성이 광범위한 참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더 확장해야 한다는 것. 사실 80회 정도 쌓여 발언자의 직업이 겹치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서의 다양성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가려진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자는 취지에 따라, 상당수 글은 자신의 처지나 억울함, 부당함을 호소하고 고발하는 정서가 주를 이뤘음. 그런데 이번주 실린, '수선한 옷 만족해하는 손님 보면 뿌듯해요'란 제목의 글 보며 다른 생각을 하게 됨. 이글엔 악인도 사회적 제도적 장벽도 등장하지 않음. 기껏해야 '1만원짜리 바지인데 기장 줄이는 수선비가 4천 원이라니 비싼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손님이 언급되는 정도임. 사회적 편견이나 악역과 대치 없이 잔잔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이의 글인 셈.

-이 글을 읽으며, 6411은 희노애락 네가지 정서가 모두 뛰노는 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함. 분노하고 슬픈 이야기만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잔잔한 삶 이야기도 가능하구나. 더 다양한 이야기와 정서를 가질수록 더 많은 이들의 공명을 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물론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런 글은 다수가 되긴 어려울 것임.

-다음으로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쓰는 글의 방식 다양화. 일단은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쓴 글을 소개할 수도. 2021년 우연히 매일신문 시니어문학상 논픽션 부분 수상작인 이순자님의 '실버 취준생 분투기'를 읽고, 그해 읽은 글 중 가장 인상깊은 작품이란 생각을 했던 기억. 원고지 160장 분량이었는데, 읽기 시작해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어. 상금을 내걸고 공모 대회를 치른다던지. 구체적 고민은 재단과 자문위원분들이 좀더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다시 돌아가 지금까지 80여분의 참여한 글들을 생각해봄. 이 목소리들은 글쓰기와 관련된 직업을 갖거나 적어도 이른바 지식인 범주에 드는 일반 오피니언

면 필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글. 실무적으로는 품이 들기도 하지만, 6411의 목소리였기에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음. 대부분 노곤한 일상, 즉 노동하는 삶에 지쳐 잠시 짬이 나면 쉬거나, 자거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게 당연한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사회에 말을 걸었음. 그 과정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고 보람이 있었으며, 그런 마음으로 재단과 자문위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픈.

「서사적 우정과 당사자의 글쓰기」에 관한 생각들

최지인 / 시인

1. “읽고 쓰는 사람”에 관하여

‘의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치가 변화하고, 어떤 고전적 가치는 무용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집니다. 문해력(文解力)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면서, 문명(文明)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를 파악하며 더 나아가 세계를 헤아리는 능력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읽기’보다 ‘보기’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상 매체를 활용해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출판 시장에서는 에세이 장르가 여전히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 + 세대 간 언어 경험이 달라진 시대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 텍스트 중심의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

2. “서사적 우정’은 가능한가?”에 관하여

우리 시대의 노동 문학은 블루칼라의 이야기에서 화이트칼라의 이야기로 확장됐습니다. 공장과 사무실, 현장직과 사무직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필수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했습니다. 저는 이주 노동자의 글쓰기가 우리 문학의 지평을 넓히리라 전망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이중성을 드러내고, 읽는 이에게 교차성의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운동의 3요소(조직, 학습, 선전)를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고(조직), 함께 읽고 쓰며(학습), 이웃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눈다(선전).’ ‘이야기 공동체’는 ‘듣기-말하기’ ‘읽기-쓰기’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 +문학인은 어떻게 이야기 공동체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당사자 글쓰기: 생존에서 생명으로’에 관하여

이야기가 삶을 계속하게 하는 이유는 ‘나’를 말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자의 글쓰기는 노동이 끝나고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고되고 지지부진하기 마련입니다. 무척 외롭고요. 저는 제가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문학을 토대로 이야기 공동체를 구축하고 로컬 잡지·시집·소설집 등을 묶어 이웃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이야기가 계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4. 누가 말하는가, 자기 언어로 말하기, 누구에게 말하는가

말하는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새로운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시를 쓰는 것 같은 시도 말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작은 변화를 이끕니다. 누군가의 시 쓰기는 말하기의 시작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말할 권리는 생각할 권리이며 변화할 권리니까요. 문학적인 말하기 방식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뤄집니다. 자기 언어로 말하기 위해선 내 목소리에 경청해야 합니다. 글쓰기는 일차적으로 ‘나’와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합니다. 목소리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돕습니다.

+ 말할 수 있는 자와 말할 수 없는 자의 경계는 어떤 순간에 허물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